

제17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12. 28. [월] 09:30 ~ 13:00
장 소	대우빌딩 7층, 회의실
참 석 자	위원장 등 9명 [재적인원 11명 중 9명 참석]
주요내용	○ 공론조사(시민참여단) 행사 개최 관련 논의 ○ 2차, 3차 조사(안) 추가 논의 ○ 공론조사(시민참여단) 세부 프로그램 논의
회의결과	○ 공론조사(시민참여단) 행사 개최 관련 논의 ※ 사전교육(O.T) 및 숙의토론회 통합 개최 ▸ 일 정 : 2021. 1. 23.(토) 09:00 ~ 18:30 ▸ 장 소 : 전일고등학교 내 13개 교실 활용 ▸ 진행방식 : 직접대면(분임토의) 및 온라인 비대면*(전체토의) 병행 (*영상회의 시스템(Zoom) 활용하여 비대면 진행) ※ 시민참여단 120명 중 99명 참석 (82.5%) ○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2차, 3차 조사(안) 추가 논의 및 확정 - 시나리오(안) 선호 정도, 연관검토사항 관련 중요도 및 인식도 조사 등 ○ 공론조사(시민참여단) 세부프로그램 논의 - 시민참여단 사전교육을 위한 동영상 제작 ▸ 시민공론화에 대한 설명 : 신규 영상(3개) 제작 [예정] ① 공론화의 이해와 시민 숙의토론회의 역할 ② 공론화 의제와 쟁점 ③ 시나리오워크숍 경과 ※ 시나리오워크숍 결과 각 시나리오 설명 : 신규 영상 제작 [완료] · 사회자 및 발표자가 질문&답변 형식으로 진행

제17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금일은 제17차 회의입니다.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7번 모임이고, 시나리오 워크숍 3차례가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 초반에 끝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봅시다. - 개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참석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일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인원은 총 11명인데, 현재 9명이 참석하여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일 회의는 진행 상황 보고,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관련 행사 등 관련 내용이고요. 세부프로그램 논의, 2, 3차 조사 및 자료집 검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 네. 안녕하세요. 옛 대한방직이 부지 관련 제17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박수 한 번 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를 장소로 제공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시다. - 그리고 또 한 건은 우리 ○○○ 위원님이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나중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 그러면 먼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 진행상황 보고

전주시 관계자	-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 수렴사항 인데요. 지난 회의 이후에 지금 15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역시 대부분 부지에 대한 개발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습시다. - 대부분이 다 개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다 보니, 이게 과연 시민 들의 순수한 의견이냐, 그 내용입니다. - 다음으로 시민참여단 120명이 1월 중으로 연기가 되면서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했었는데, 지난주 22일, 23일 조사를 했더니 지금 약 85명 정도. 1월 저희가 날짜는 대략적으로 23일 정도 조사를 했더니 70% 정도 나왔습시다. 다만 오늘 회의 이후 더 그 날짜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면 추가 조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 시민참여단 사전 교육 및 숙의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으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사전 교육 및 숙의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배포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전주시 관계자	- 우선 시민참여단 사전 교육 자료 배포를 목적으로 동영상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 공론화 이해 과정에 대한 설명과 가능한 시나리오 3개 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였고요. 시민 공론화에 대한 이해 과정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교육 자료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 먼저 시나리오 A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저희가 ○○○ 위원님께서 직접 사회를 봐주시고, 전문가의 매끄러운 진행을 통해서 저희가 각 시나리오별 대표 두 분씩, 여섯 분 모두 다 참석해 주셔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미래상, 공간 구성, 연관검토사항까지 해서 사회자와 같은 질문, 답변 형식으로 해서 약 16분 정도 해서 3개의 동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한번. 보시죠.
위원장	- 한 번만 들어보시죠.
<제작 동영상 시청>	
○○○ 위원	- 이걸 편집을 컷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는 보통 14분, 15분 깔끔하게 다 끝났는데, 여기는 20분이 더 걸렸고요. 저희가 이게 설명자료고 비교자료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은 정해진 것만 했었거든요. 저도 가능하면 궁금한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지만 안배를 다 했는데 여기가 너무 길어서 마무리, 정리 인사말 많이 줄이겠다고 말씀드렸고, 시간은 아까 말한 대로 그래도 다 똑같이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안에서 편집을 해달라고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 나머지는 추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 ○○○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은 완성 편집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편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것에 대해서 다 보지는 않았습시다라는 편집상에서 특별히 주문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까?
○○○ 위원	- 세 개 시나리오 분량이 동일해야할 것 같거든요. 안에서 조금 약간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뭐 10분이면 10분, 13분이면 13분 세 개를 모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다고 해서 어느 시나리오 분량을 늘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동일한 시간 안에서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 위원	- 그런데 저희가 발표 발표시간까지 큐시트에다가 해서 1분 30초 이내 이렇게까지 한 게 아니고 선거 토론에서도 넘기면 안 되지만, 줄이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5분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는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것도 15분 안으로 가능하면 15분을 전후로 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최대한 맞추도록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위원	- 그럼, 3개 동영상 따로따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에 다 3개 동영상이 들어가는지 얘기해보죠.
○○○ 위원	- 그거는 그 버전을 하나로 하나짜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 그다음에 내가 이 시나리오가 궁금할 때는 그것만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아마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해야 할거 같아요.
○○○ 위원	- 만약에 지금 3개 시나리오가 이 시간적인 문제는 나중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칙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내용은 규칙을 모르고 봤을 때는 어떤 거는 15분의 규칙을 뒀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설명하시는 분이 설명을 잘했든 어찌됐든 해서 10분, 12분이고 어떤 시나리오는 15분이다 이랬을 경우에 앞에 자막을 넣어서라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15분 이내에 설명을 하도록 원칙을 부여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부여를 했다’ 이런 것을 멘트를 앞에 깔아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고 뒤에 마무리, 인사말에. 앞에 있는 설명은 저희도 나왔던 것처럼 시나리오가 긴 시나리오가 있었고 내용이 길어서 이걸 맞추까 어떨까 잠깐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인사말하고 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라도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 위원	- 다 1분 차이네요.
위원장	- 그래서 어쨌든 우리 ○○○ 위원님 의견대로 발표 시간을 맞추는 게 좋다. - 두 번째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앞에 원칙을 그렇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기 ○○○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게 좀 편집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수행기관	- 영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일 차, 2일 차, 3일 차 저희가 촬영을 했던 화면을 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동영상 교재로 활용하려고 촬영한 게 아니었다 보니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 그냥 현장에 그냥 어떻게 했지만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처음에 그때 위원장이 말씀한 한 시간 분량을 예상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효용성이 떨어지겠다. 왜냐하면 O.T형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림만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 좀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두 시간 반 분량인데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공론화 이해 부분하고 시나리오 워크숍 경과 과정하고, 그리고 기술자문단 설명 이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뒤편에 보시면 일단 공론화 이해 부분은 저희가 1일 차에 앞쪽에 서두에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시고, 추진 경과 ○○○ 위원의 추진 경과 하신 부분, 그리고 공론화 의제 ○○○ 위원님이 하신 자료집보고 하신 내용, 그리고 질의응답 부분인데 질의응답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뒤쪽에 기술자문단 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같이 묶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부분이 이제 거의 56분에 해당됩니다.
-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그때 촬영한 현장에 대한 화면인데 이거를 아까 따로 편집하신 그런 형태로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문가와 좀 협의해서 그렇게 형태로 바꾸자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밑에 발제자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오듯이 그런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찍은 화면이 따로 스튜디오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별도의 편집 과정이 있어야 해서 지난주에 의뢰를 한 상태고요.
- 그래서 첫 번째 공론화 위원장 말씀은 그대로 나가고 이에 추진 경과 그런 형태 그리고 공론화 의제에 대한 소개 자료집도 자료집을 말씀하시는 페이지를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본다는 걸 화면에 띄우고 옆에 조그맣게 발제자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질의응답은 저기 앞쪽에 한 게 연단에 가져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질문하신 분은 또 동영상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디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장황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조금 편집을 해야 할 것 같고, 이거를 이후에 기술자문단에 그 형태랑 좀 합쳐서 조금 같이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이거는 시나리오 워크숍 경과인데 일률적으로 제가 하나의 화면을 5분씩 잡았는데, 5분씩 잡으면 너무 깁니다. 이게 자세한 설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발제자가 나왔으면 설명하는 약간 스케치 형식이 그렇게 나올 건데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1분 정도 내외로 할 예정입니다.
- 분임 투어에는 저희가 따로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었는데 현장 사진이 있어서 몇몇 컷을 이렇게 합치는 그런 과정도 넣을 거고요. 그래서 전체 소감 나누기까지 해서 이것도 한 35분 분량인데 한 20분 이내로 줄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말씀드린 세 번째가 기술자문단 설명인데 사업계획 검토와 전주 도시

	계획, 연관 검토사항 아까 말한 질의응답을 여기에 같이 붙여서 30분 분량인데 뭐 이것도 20분 내외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일단은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저희가 원래 이 용도로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의외로 시간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저희가 그래서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아직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1월 초에 나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첫 느낌에 대한 의견밖에 지금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간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또 진행 쪽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시죠. 저만 봐도 전체적인 시간이 공론화의 이해는 전체적으로 얼마라 그랬죠?
용역 수행기관	- 저 부분이 첫째 날, 하나인데 56분, 50분입니다.
위원장	- 약 56분, 35분, 30분 그러면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을. 2시간 반을 한꺼번에 꼭 하는 거죠?
용역 수행기관	- 3개로 나가도 상관없기는 한데, 일단 전체적인 시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면 OT 때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용도입니까?
용역 수행기관	- 이건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고 그 시간대에는 시간이 하루에 다 끝나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여주는 겁니다.
위원장	- 아, 사전에 보여주는거다. 사전에. - 한 번 의견 주시죠. 전체적인 시간 배분은 2시간 반인데 2시간 반은 너무 길다. 제가 볼 때는 한 2시간 정도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위원	- 사전 숙의의 목적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 일단 사전 숙의의 목적으로 하면은 하나의 동영상만 1시간 이렇게 긴거는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보통 이런 일 할 때 최대 20분 정도가 가장 적합한거고, 다른 공론화에서 이런 대상으로 할 때는 보통 1강에 20분 정도 내외로 만들었거든요. -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기 공론화의 이해, 시나리오 워크숍 설명, 기술자문단의 설명이 들어간다면 최대한 한 쪽지에 20분 내외로 편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게 이제 그 첫 단계 공론화의 이해와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저거를 보시는 분들은 시민참여단은 시나리오 워크숍이 주가 아니잖아요? 공론조사가 주가 되는데, 지금 저거는 시나리오 워크숍 때 시나리오 워크숍용으로 만든 거에서 약간 포커스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 그다음에 나머지 기술자문단이나 이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시나리오 워크숍 했을 때

	촬영한 동영상 하고 그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지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분, 35분, 30분은 너무 길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고, 한 클립당 한 20분 정도로 해서 압축해서 만드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진행내용은 그냥 한 5분 내지는 3분 정도를 해서 그냥 이렇게 경과적으로 쪽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걸 그냥 '아,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냥 아는 정도로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 일단 맨 앞으로 넘어가주세요. 그게 3꼭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론화의 이해, 그다음에 시나리오 워크숍 설명, 그다음에 기술자문단 설명 이렇게 되는 거죠. - 그런데 ○○○ 위원님은 공론화에 대한 이해의 이 세 꼭지가 20분 내외 이 정도로 가는 것이 보기에 좋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공론화의 이해 쪽으로 한번 지금 바꿔보죠.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 공론의 이해인데 지금 저것은 예를 들어서 공론화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 지금 시민 조사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도 좀 있어야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는거다 그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공론화의 이해 속에, 지금 이 120명에 이 토론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두 번째는 공론화의 이해를 예를 들어서 20분 내외로 줄인다고 하면 저게 가능할까요? 질의응답을 뒤로 빼면 25분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25분 줄어들면 30분 정도 되는 겁니까? 40분 정도 되나요?
용역 수행기관	- 30분 정도입니다.
○○○ 위원	- 일단 저도 너무 시간적으로 공론화 이해를 클릭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 위원	- 제 생각에는 공론화의 이해를 한 15분 정도만 하시고요. 공론화 의제 및 세부 쟁점을 2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나왔던 질문 중에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모아서 질문으로 질의응답 동영상을 쟁점 이슈나 쟁점 관련 질의응답 해서 그거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되게 압축적으로 짧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한게 시나리오 워크숍 설명이 35분이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 수행기관	-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정입니다. 경과. 그때 발표를 스케치 형식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 위원	- 그거는 그게 진행됐다는 게 한 5분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공론화의 이해하고 그다음에 연관 검토사항 관련해서 현황과 세부 쟁점 의제, 공론화 의제 이 정도를 해서 20분 정도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나왔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 그게 클립이 잡아지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 만들고 나머지 그냥 시나리오 워크숍 스케치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 지금 ○○○ 위원님의 한 얘기를 어디다가 좀 나오게 할 수 없어요? - 정리를 좀 할 수 없나요?
○○○ 위원	- 저도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시간문제 때문에 가능할까 싶은데, 저는 이거 시나리오 워크숍 내용은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도 설명도 드렸고 자료집도 좀 나가고 있고 좀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을 건데, 그러니까 시나리오 워크숍에 사실 동영상 실제 촬영한 것들을 일부 편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방대한데. 저 정도는 그냥 그런 시나리오 워크숍 정말 열심히 했고, 숙의 과정을 거쳤고 이 정도로 그냥 사진 영상으로 음악 깔아서 해도 될 것 같고요. - 저는 공론화의 이해, 시나리오 워크숍 설명 그다음에 쟁점 설명이 아마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각각 20분씩, 20분짜리로 만들고요. - 저는 이거를 기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머리만 복잡하고 일이 더 안 나가고 만들어 내봐야 내용은 길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생각을 좀 바꿔서 이걸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 공론화의 이해를 가지고 저희 PT 자료, 기자 브리핑한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의 이해는 어쨌든 ○○○ 위원님이나 우리 ○○○ 위원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이 한번 모여서 찍으면 반나절 정도면 끝날 수 있거든요. 한번 쪽 설명하는건 PT로 해서 넘기고 시간 맞추면 되고, 시나리오 워크숍 과정은 영상하고 자막 처리해서 재미있게 넘어갈 때마다 짧으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중간 중간에 좀 녹음한 거 사운드도 따가지고 넣으면 될 것 같고요. - 아니면 이것 역시도 PT로 해서 시나리오 워크숍은 뭐 그 사람은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술자문단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고 보면 저희 위원 내에서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하면 설명을 하고 해주시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 저는 그러니까 20분, 20분, 20분짜리 1시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별도로 하루 만들자 이거예요. 크로마키 있는 데에서만 그렇게 PT 띄워놓고 하면 되거든요.

	- 그게 여기 작업하는 데도 쉬울 겁니다. 저거를 실제 촬영하고 여기다 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록용으로 한 거여서 사운드도 굉장히 떨어질 건데 이거를 가져다가 맞춰서 화면하고 잡으려면 어렵고,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세 분의 역할을 주고 새로 만들자. 이 제안한 것들을.
위원장	- 시나리오 워크숍 설명은 영상 자막으로 한 10분 정도, 10분 이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용역 수행기관	- 저희가 그때 1, 2, 3일 차를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가편집해서 음악 깔고 자막 넣고 해서 12~13분 정도를 저희가 만든 게 있습니다.
위원장	- 그 정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 위원	- 영상을 내레이션을 입힌다고 생각하고, 큐시트를 짜서 아까 음성 나오고 그 자막이든 내레이션이든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다큐 이야기하듯이 내레이션이 어려우면, 자막으로 쪽 들으면서 몇 월 몇 일에 몇 명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앞에서 개요 나오고 이런 순서로 진행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위원장	- 처음으로 가보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저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10분이 될 때 15분이 됐던 기존에 있는 것을 모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래서 저는 저걸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서 - 지금 ○○○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번 120명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봤자 줄이고 해봤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새로이 이걸 가지고 만든다. 아까 동영상 만들듯이 만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용역 수행기관	- 일단 발표 자료 내용이 새롭게 편집돼야 할 것 같고요. 따로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빨리 시작될지가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게 되면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면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먼저 작성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 저는 어떻습니까. 저기 위원님들이 기존에 있는 짝은 동영상을 가지고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짝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요?
○○○ 위원	- 그냥 비용이 좀 드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공론화의 이해하고 세부 쟁점하고 의제 관련 부분은 요즘에 뭐 줌이나 이런 거 해서 강의하듯이

	PPT를 띄워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해서 짧게 한 20분 내외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워크숍 했던 것은 사진으로 들어가면 설명해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시나리오 워크숍은 시나리오 A, B, C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시나리오 워크숍 설명이 쟁점 시나리오 도출의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것은 별도로 하면 될 것 같고. - 기술자문단은 사실 이게 가장 핵심 연관 검토사항인 거잖아요. 공론화의 이해에서 사실 쟁점이 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처음에 공론화의 기본을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넣어서 공론화의 이해와 주요 쟁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자문단과 연관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이번엔 만든 거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될 것 같거든요.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의 이해는 어쨌든 ○○○ 위원님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기술자문단이 와서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가장 종합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은 위원장님이시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위원장 인사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으니까 기술자문단에 대한 도시 연관 검토사항에 대한 쟁점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시고, 시나리오 워크숍 갖다 붙이면 촬영은 두 분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워낙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스튜디오 있는데 지금 시에 이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촬영해서 하는 게 오히려 여기서도 작업이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지금 주요 내용의 원칙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죠. - 일단 새로 만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공론화에 이해하는 것보다는 '공론화의 이해와 시민 속의 토론회의 역할'이 정도로 1번이 갔으면 좋겠고요. - 그리고 기술자문단의 설명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연관 검토사항 및 주요 쟁점 그럴까요? - 그리고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설명이 가든지요. 그러면 저기 공론화의 이해 및 속의토론회의 역할 20분, 연관 검토사항 및 주요 쟁점 또한 20분, 그 다음에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해서는 10분 이내가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연관 검토 사항의 주요 쟁점에 한 25분 가도 좋을 것 같고요.
○○○ 위원	- 연관검토사항은 '공론화 의제와 세부쟁점' 이렇게 하시면 그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공론화의 이해와 시민 속의 토론회의 역할에 대한 원고는 우리 ○○○ 위원님과 좀 중심이 돼서,

	한번 원고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론화 의제와 세부 쟁점 이것은 저와 우리 ○○○ 위원님이 중심이 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워크숍 저것은 그냥 모으는 거니까 기존의 동영상 그대로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까? 기존에 시나리오 워크숍도 다시 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 위원	- 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숙의 참여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것들이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막 깊게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하고 저하고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상은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위원장	- 저기는 세 번째는 ○○○ 위원님하고 행정. 그래서 저 우리 중심이 되어서 원고를 일단 만들어서 하루 날짜를 잡아서 동영상을 찍는 거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원고를 언제까지, 원고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날짜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제목하고 시간은 괜찮은가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공론의 이해와 시민 숙의 토론회의 역할, 그다음에 공론화의 의제와 세부 쟁점, 그리고 시나리오 워크숍 하는 것보다는 시나리오 워크숍 뭐라고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의 영상스케치?
○○○ 위원	- 제목은 좀 하는 과정에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여기 시나리오 워크숍 영상 마지막에 시나리오 A, B, C가 모두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말한 그래서 조별을 아까 A, B, C로 발표하는 것이 그다음으로 배치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저기에 이제 A, B, C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나오고. 일단 제목은 그러면 일단 영상 스케치라고 했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되었던 그렇게 다시 또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공론화 위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날짜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저희들이 결정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배포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 날짜는 지난번에 대충 1월 23일 토요일로 일단은 봐야 하겠지만 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하루만 하기로 했고요.
공론화 진행 사회자	- 숙의 토론회 운영 기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동영상 관련해서도 말씀하시는 중에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데 제가 더 좋은 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마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연관된 부분이 좀 있어서. - 첫 번째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제 안을 만드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료집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크게 다른 공론화에 비해서는 자료집이 크게 논란이 없어서, 어느 정도 완성본이 나와 있기때문에 - 지금 동영상에 이야기하실 때도 자료집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 그다음에 연동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오시기 전에 자료집 공부하고 오시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꼭 한 번 좀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 그다음에 어찌됐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은 동영상이 지금 사전교육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루 정확하게만 5시간 정도를 지금 이 동영상으로 줄이는 과정인데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20대부터 70대까지의 전주시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고민하지 않으시면 '이게 뭘 소리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전에는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그 연관 검토사항 얘기하시고 질의응답 부분은 지금 다 날아가 버렸는데 자료집 뒷부분에 보면 16개 질문과 답변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궁금해할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 잘 모르는 전주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들이 자료집에도 잘 나와 있고 그것들의 연결고리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60분 편성이 굉장히 알차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 먼저 좀 간단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 잠깐만요. 자료집도 먼저 충분히 먼저 전달되죠?
용역 수행기관	-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게 오티 때 만약에 사전에 일주일 전에 했으면 이걸 별도로 오프라인으로 제공해드리려고 했는데 합쳐지면서 사전에 좀 공개가 돼야 하지 않나 해서 온라인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사전에 시간이 된다면 직접 다 이렇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 제가 볼 때는 120분에게 사전에 전달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아까 시나리오 이렇게 동영상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이미 배포된 자료집 몇 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추가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사전에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때 동영상을 보면 더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사전에 자료집이 배포되기를 바랍니다.
공론화 진행 사회자	- 지난번에 아마 기초적인 내용은 이미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과 바뀐 부분은 토요일 오후 그다음에 그 이어서 2주 후에 또 하루종일 8시간 편성을 모두 다 줄여버리고 하루 편성으로 한다.

전제조건은 동영상 사전 학습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 전제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요.

-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러 시간 안에는 쉽지가 않아서 8시간 30분 일단 안은 만들었습니다. 분임의 구성이라든가 운영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과 동일해서 일단은 10개로 편성에 한 조에 맵시팀 12명, 모뎀레이터까지 하면 13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참가인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보면 일반적인 이슈라서 정확하게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다 동일하게 보이고요.
-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맨 뒤에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시간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루하더라도 내용은 쪽 한번 같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9시에 시작한다고 한다면 스텝들이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간은 08시부터 참가자 등록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조사가 9시부터 9시 20분까지 2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지금 이게 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또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2차 조사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시작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이 꽤 된 상태가 되어서 다른 공론화와 다르게 약간 변수가 생겼다는 걸 미리 조금 고려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2차 조사 20분을 하고요.
- 바로 이어서 개회식 10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는 합니다마는 시민참여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세리머니는 들어가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이거는 넣어두었습니다.
- 그러고 나면 숙의 토론회 안내 및 일정소개 입니다. 이건 제가 진행할 예정인데 이미 공론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 있고 정보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같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과 관련된 다양한 상호 간의 숙의의 문제, 그다음에 존중의 문제 이런 것들은 확인 드려야하고.
- 그다음에 그날의 시간표는 제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규칙을 정하는 시간 그렇게 정했습니다.
- 그리고 나면 10분간 휴식하고 의제 발표를 해서 대한방직 부지 현황 및 공론화 의제해서 20분에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20분이 조금 길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기존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습이 돼있는 분들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고민은 일일이 로그인해서 E-러닝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닌 상황이면 유튜브를 아무리 보고 오셨다고 해도 이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는 보장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 그리고 연령대라든가 학습 여러 가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 숙지의 정도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리프레시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저희가 일단 20분 편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분임토의 들어가서 60분, 특히 여기 60분은 앞에 인사만 나뉘어도 보통 한 15분 지나갑니다. 사실상 논의에 토론하는 시간은 4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일단 60분 정도로 해서 넉넉하게 편성을 했고요.

- 휴식 취하고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40분 정도 잡았습니다.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8시간 안에서 이 정도 이상은 쉽지가 않아서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 점심시간 시간은 12시에서 13시로 일단 정했고요. 그리고 나면 바로 시나리오 발표라고 해서 시나리오 숙의 및 질의응답입니다.
- 3개의 시나리오 60분 정도 각각 20분씩 정도 되어 있으니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의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 위원님이 촬영하신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가 좀 나와 있는 것이라서 유튜브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꼭지는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60분까지 같지는 조금 논의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저희는 일단은 각 시나리오별로 보시면 20분씩 편성되지 않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꽤 가기 때문에 시나리오당 한 15분 안에 편성이 되면 전체 시간 60분 정도 편성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휴식 취하고 나서 시나리오별 토의, 장단점까지 포함해서 여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서 가장 많은 70분을 배정을 했고요. 토의하고 나서 다시 45분 동안 시나리오별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 앞에 70분인 것에 대해서는 고민, 저희들의 고민의 지점을 위원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시민참여단 입장에서는 시나리오가 3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질문을 하나씩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에 한 개씩만 만들어도 한 조에 70분에 3개의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되니까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8시간 안에 할 수밖에 없으니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고민은 된다 그러면 모뎀레이터들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 70분 안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70분, 45분 형태로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 그리고 나면 시나리오 심층 토의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들의 과정에서는 여기가 연관 검토사항 논의 이렇게 돼 있던 편성을 제목을 너무 그렇게 하면 쪼개지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시나리오 적용 시 기대효과 한계 & 보완점 제목은 이렇게 정하고 내용상에서는 연관 검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정도로 조금 더 폭넓게 미래적인 관점에 논의까지 될 수 있게 한다가까지 40분.
- 그리고 분임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면 다시 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그리고 나면 바로 최종 분임토의 마무리하는 시간 20분 정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참여자들이 의논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면 최종 3차 조사가 2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인증서 수여하고 소감 나누는 시간까지 하면 전체 하루 편성 8시간 30분이고, 실무적으로 보면 9시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9시에 시작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참여단 여러분들이 딱딱 맞춰주시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빠박한 일정이라는 합시다마는 쪼개고 쪼개봤을 때 하루 안에서 그나마 정리를 한다면 8시간 반을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짜임새 있게 짜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 환영사가 아니라 위원장 인사로 바꾸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 위원	- 일단은 지금 9시 50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진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 분임토의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 그다음 질의, 그 질의도 취합하고 선정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저는 이것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개인들은 개별적 질문 그러니까 토론의 질문이 아니라, 개별적 질문에 어떤 범위 안에 실제 토론을 해도 그 내용들이 비슷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왜냐하면 적극적 의사충 내지는 적극적 사전에 준비한 층들이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을 쏟아내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보면, 그냥 사전에 개인적으로 궁금해했던 것을 접수나 참가자 등록 이때 한번 쭉 받아서 그 경향들을 좀 이렇게 놓고 질문, 토론을 하고 선정하고 발표하고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시간의 효율성. - 물론 토론 과정에서 오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지만, 어떤 좋은 안에 정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운영상 약간은 개별적으로 쭉 모아서 질문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차 답변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시간을 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론화 진행 사회자	- 일단은 두 가지 관점의 말씀을. 실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 중에 하나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 휴식시간이 가운데 10분씩 배치가 돼 있는 게 토론이 끝나고 질문이 모아지면 그게 온라인상에서 저희 센터 컴퓨터에 쭉 올라오고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저희가 기본적인 분류를 합니다. - 그러니까 예컨대 10개 조면 질문이 겹치는 게 한 반 정도 이상 한 조에 두 개씩 올라온다고 하면, 총 20개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20개

	중에 10개 이상 겹칩니다. 결국은 그런거 몇 개 뽑아내고요. - 각 조별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또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질문도 좀 있어야 하는데 안 그럼 너무 딱딱해져서 그런 거 몇 개 배치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도 이렇게 해서 전체 진행은 추합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 그건 저희 모든 모더레이터들이 나름대로 스킬 업이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 매우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 두 번째는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편집하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효율성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위원회 내지는 진행자들이 개입하는 여부에 관해서 또 다른 논란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미리 체크하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큐앤에이 16개 질문 정도를 미리 좀 친절히 안내하는 것 정도에서 그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 그리고 생각 외로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그분들은 또 다른 형태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보다는 동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보고 있어서 조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일정 정도 방향성과 시간을 같이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저게 우리 ○○○ 위원님 의견을 듣다 보니까는 우리 아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다 이렇게 들은 다음에 소개도 하고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해서 그걸 좀 그때 질의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 여기서 더 알고 싶은 사항은 있으면 우리 숙의토론회 때 답변드리겠다 해서 그때 질문 좀 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공론화 진행 사회자	-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미리 모아지고 나면,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흥행성이 떨어집니다.
○○○ 위원	- 그렇습니까?
공론화 진행 사회자	- 현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게 질문이 되는지를 분임토의 안에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질문이 100개가 들어왔는데 그 100개를 다 답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 선택 과정에 어떤 형태로서든 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저희는 가능하면 시민들이 조금은 처음 시작할 때는 중구난방이 되죠. -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조는 이 질문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 질문을 참여자가 발표하는 과정이 가지는 의미도 적지 않아서 뭔가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주시면 어떨까.

○○○ 위원	- 참가자 등록할 때 사전에 분임토의에서 질문할 내용들을 사전에 작성해 달라든지 분임토의 안에서 토론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될까요. 상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위원	- 동영상에 질문이 있으시면 적어오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영상 만들 때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내용상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순서상 여쭙볼게요. 지금 10개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각자 다 10개 팀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 10개 팀으로 나누어지고 개회식 하는 것은 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속의 토론회 일정 소개도 전체적인 한 영상으로 나가는 거죠. - 그다음에 휴식하고 의제 발표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분임토의는 각자 이제 쪼개쳐서 분임토의하는 거고, 이 질의응답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 그다음에 시나리오 발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질의응답도 전체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럼 분임토의는 이제 각 분임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영상은 거의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분임토의와 제3세션 분임토의 때만 쪼개쳐서 얘기가 나온다.
공론화 진행 사회자	-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임토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전체 전체적으로 온라인이 10개가, 10개의 방이 하나의 화면에서 만난다 이렇게 됩니다.
○○○ 위원	- 그리고 저는 그 시민 대표단 위촉장 수여할 때 대표만, 가급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표만 수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증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증서는 누가 만들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기때문에
공론화 진행 사회자	-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거고요 2세션이나 3세션쯤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미리 만들어는 놓고 가운데 이탈하신 분들은 빼고 모더레이터들이 나눠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	- 인증서에 당신은 위 상기 과정을 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함 이렇게. 대개 이걸 줍니까?
공론화 진행 사회자	- 네
위원장	- 그러면 이거 인증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론화 진행 사회자	- 위촉장 수여하실 때는 조금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연령대별로 대표성을 좀 마련해서 3~4명정도 위원장님께서 수여하시는 걸로.

위원장	- 또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죠. 없으시면 뭐 2차 조사할 때 20분이면 될까요?
용역 수행기관	-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방별로 해서 오프라인을 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리고 그 자리에서 배포해서 간단하게 작성하고 저희가 회수해서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위원장	- 저는 왜 물어봤냐하면 참가자 등록을 한 50분 정도로 줄이고 2차 조사를 한 30분으로 늘릴까 그래서 물어본 건데. 좋습니다 - 그리고 이때 점심은 어떻게 도시락으로 합니까?
용역 수행기관	- 예
위원장	-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 전체 운영 기획안하고 이 시민 숙의 토론 프로그램은 이렇게 지금 올려놓은 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공론화 진행 사회자	- 저희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해지지는 않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시민참여단이 숙의토론을 하는 과정에 언론이 지나치게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찬반 양측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관여하시거나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꼭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지금까지 현재까지 선례로는 전체토론 과정에는 다양한 형태의 참관이 가능합니까마는 분임토의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안에 들어가서 저희 스텝 말고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행된 것이 지금 대한방직 공론화의 전제이거든요.
○○○ 위원	-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들이 취재를 했다고 생각 안해요. 그래서 자료 사진은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뭐든지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지 않을까요.
○○○ 위원	- 언론인들은 전체 앞에 이렇게 우리 모으고, 전체적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임토의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좀 취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은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참가인단 등은 구성할 필요가 없지는 않을까합니다.
공론화 진행 사회자	- 저희도 표현이 좀 너무 딱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 제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임토의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것에서는 접촉하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언론도 마찬가지고. 다만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모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재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으로 한다.

○○○ 위원	- 구체적으로 언론 공개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데요. 전체 저희가 모이게 되면 시작할 때 지난번 인사할 때 공개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게 되잖아요. - 이거를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림이 돼야 하는 것은 그림을 놓고 보면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만들어줄 거냐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저는 뭐 불가피하게 아까 말하는 대로 조별토론은 처음 5분 정도 논의하는 과정은 스케치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시간이 있어야 하고. - 그다음에 두 번째 조별로 숙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 할 때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하나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라고 하는 시청각실에 저희 메인, 예를 들면 공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거기다 스크린을 띄워서 접속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룹별로는 다 줌으로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한 그룹이 하나가 있고 전체 스피커 하나하고 화면 카메라 잡는 게 있을 거고 우리 메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 그러면 카메라가 여기 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메인 스튜디오 내지는 진행하는 공간을 어디에 둘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시청각실 밖에는 없고요. 저는 시청각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취합하는 거가 되는 거고, 언론은 여기 와서 화면에 띄워져 있는 각각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잡아주는 거. 그 장소가 실제로 이제 언론 공개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 제가 별도 참관인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숫자를 늘려서 지금 이거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온라인으로 그때는 접근할 수 있는 걸 열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카메라 현지 촬영은 시청각실에서 그런 식으로 아마 해야 하지 않을까.
위원장	- 그렇게 그러면. 다만 참가인단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
공론화 진행 사회자	- 저희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옛 대한 방직 부지 관련 공론화가 다른 공론화에 비해서 그렇게 찬반이 갈등이 높은 이슈는 아니어서. 높은 이슈에서는 특히 오프라인은 오고 갈 때, 시민참여단에게 접촉하거나 본인들의 입장을 120명 중에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면서 쓸데없는 갈등 요소가 또 터져서 저희가 120명이 편안하게 소개하실 수 있는 과정에 누구라도 그런 식의 접촉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온라인이 되니까 사실은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쨌거나 저희가 비표도 관리해야 하고 계속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룰만 정해주시면 그 테두리 안에서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위원	- 제생각에는 여기에 그날 저희들이 행사하는 장소에. 글썄요. 언론인만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참가인단이 '우리 한번 보자' 이것을 허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 다만 일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면, 전체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는 접촉해서 될 하고 있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	- 보통 다른 공론화 같은 경우는 시민숙의토론회는 영상 촬영을 해서. 분임토의 빼고요. 전체토론이랄지 영상 촬영을 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개의 원칙이기 때문에. - 줌으로 하면 그게 영상이 쉬워요. 자체를 녹화해서 스트리밍만 하면 유튜브에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주면 시간이 한 20분? 10분? 그렇게 해서 올라가니깐 나눠서 올려도 되고요. 세션별로. - 그렇게 해서 차라리 시민한테 공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론은 일단 하루종일 여기 있어 봤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림을 잡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작 부분 정도에 어차피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거예요. 왜냐하면 더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하루 동안 취재해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 두 번째는 참관인이라고 하면 가장 여기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겠다는 게 이해관계자가 될 텐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어떤 공간에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서 참관을 한다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공개 원칙으로 하되 방법상 아까 ○○○ 위원님처럼 현장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공개 원칙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방법을 쓴다, 우리가 다 막는 게 아니라 원래는 누구나 다 참관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거거든요. - 그래서 저는 그 종일 촬영해서 어쨌든 세 파트로 나눠서 가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진행 과정에서 모두 공개되는게 맞다.
위원장	-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	- 공개하는 것 관련해서 제가 시나리오 만들면서 예산도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저희는 열심히 올린다고 하지만 이게 정보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특히 시나리오 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공개하겠다고, 그다음에 준하겠다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름 공을 들여서 시나리오를 소개하는 영상물 만든 것은 전주시 유튜브 채널을 좀 활용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잘 알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그냥 공중파에서 운영하는 채널들이 하나가 있고, 전주시에도 그래도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전주시 채널도 있거든요. - 그래서 저는 지금 시나리오 영상이든 이번에 만들어진 공론화 영상이 만들어지면 모두가 알고 있도록 저는 전주시 채널에다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공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좀 외에 한 것들을 유튜브로 옮길 수 있는 루프가 돼서 옮길 수 있다고 보면 이거는 전주시 채널로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 예.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저희 우리 ○○○ 위원님이나 대부분 위원들이 얘기하신 '이걸 그냥 공개하는 게 좋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죠.
○○○ 위원	- 그러면 저는 이제 '참가인단 구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보 공개 대한 그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한다는 워딩은 좀 고쳐주시고요. 일반인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언론 취재 이것까지는 언론에게 오픈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여기서 정보 공개 참관인단 구성이 아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유튜브에 막 들어와서 의견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저는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에서 정리를 해주시죠.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우리 안건 올린 첫 번째 안건으로 공론조사 사전 교육 및 숙의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논의는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시죠.
#. 2차 공론조사 설문 논의	
위원장	-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들 2차 조사와 3차 조사 공론조사에 대한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2차에 대해 약간의 수정이 있는 것 같아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주시에서 조금 하셨나요? 우리 ○○○ 위원이 주신 의견도 있는 것 같고. 2차 안 올려주시죠. 다른 것은 크게 뭐 좀 바뀐 게 없습니다.
○○○ 위원	-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Q3, 4페이지하고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한데, Q6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보통은 이렇게 가거든요? - 여기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 포맷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좀 다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 또 있더라고요.

위원장	- 그러면 저것부터 논의하시죠. 지금 역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그다음에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위원 모두	- 좋습니다.
위원장	-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	- 저도 그냥 전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설문지를 만들 때, 1차, 2차, 설문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숙의 기간이 되게 짧아졌잖아요. - 원래는 저희가 1차 숙의하고 일주일 있고, 그다음에 2차 숙의하고 이렇게 해서 숙의를 두 번 하는 프레임으로 원래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게 전면 수정이 돼서 당일에 지금 하루 숙의를 할 거고 오전에 2차 조사를 하고 오후에 3차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다면 이거는 조금 설문 검토하기 전에 의견을 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 당일에 한꺼번에 조사를 두번하는 거에 대한 상당히 불안감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숙의 기간이 이렇게 8시간으로 짧아지다 보니 이게 숙의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많은 지금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동안 공론화 위원회가 1년 넘게 끌고 왔기는 했는데 막판에 와서 시기가 좀 짧아지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막판에 그냥 약간 형식적으로 숙의가 됐다는 또 이런 저희가 준비한 것에 비하면 너무 부실한 숙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상당히 많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문지를 보면 2차 설문지나 3차 설문지나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동일한 문항이 숙의가 안 되면 실은 이게 공론조사라는 게 핵심이 의견의 변화입니다. - 마지막 최종 3차 조사가 결론이라곤 하는데, 2차와 3차에서 중요한 핵심 정말 중요한 문항이 어떤 의견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숙의를 통해서 이거를 보는게 핵심인데. 지금 그 부분이 살짝 걱정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차 조사나 3차 조사나 거의 문항이 동일하거든요. 모든 문항을 다 2차부터 다 묻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2차에서는 정말 이 공론조사에서 물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가장 약소화 해서 간소화시켜서 2차 문항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 그리고 3차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말 공론화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무엇을 잡을 것인지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시나리오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미흡한 부분을 물어서 좀 더 구체화해서 더 테일하게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3차 조사에서는 분량을

	좀 많이 잡아도 상관없는데. 우리 2차, 3차 문항이 거의 동일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셔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수행기관	- 일단 2차 조사는 가급적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지금 시나리오 안에 대해서, 처음에 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지도로 처음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지지도를 왜 지지하는지, 계속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환부적으로 물어서 좀 나중에 활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서 담아보았습니다.
위원장	-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왜 지지안하느냐, 지지하는 사람은 왜 지지하느냐 그걸 넣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적정 비율을 적어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용역 수행기관	- 예. 다만 중심시설만 묻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 그러니까 지난 이것은 지난번에 바뀐 것 그대로 넣은 것이고, 추가적으로 한 것은 저 두 문항이죠? -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싫어하고, 왜 찬성하지 않고 왜 찬성하느냐, 지지하느냐 이걸 좀 알고 싶다. 이런 의견 전주시에서 의견을 줬는데 2차 조사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걸 보고, '했는데 왜 지지해?' 굳이 시나리오의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시나리오 자체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물을 필요는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 위원	- 지지하지 않는 이유, 지지하는 이유를 고르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지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항목으로 요약할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기가 무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과연 이유가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거든요. - 그래서 이유를 묻는 것은 굉장히 정말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유를 항목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시에서도 이 항목 1, 2, 3, 4, 5, 6 이거 만들 때 고민 했을 거예요. -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만드는데도 여러개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유까지를 첫 2차 조사에서 물어보기는 그래요. -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 그냥 어쩐지 A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 마음에 안 들어' 이거에 실제 진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원장	- 그러니까 저는 시나리오 자체에 어떤 이유가 다만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3차에나 한 번은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Q3문항을 만들 때, 이게 상당히 시나리오 '가'가 본인이 선택할 때 어떤 걸 중점으로 다시 선택을 하느냐를 간접적으로 판단해보자는 중요도를 문자고 해서 했는데, 보시면 거기에 지지하는 이유,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Q3도 많이 녹여져 있어요. - 그래서 저는 이게 Q3 문항이 지지하는 이유,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어느 정도 그냥 유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것을 꼭 물어야 할까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위원장	- 그런데 ○○○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전주시 우리 좀 조금 이것은 물어보는 것이 너무 그렇다. 그냥 시나리오 자체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면 어떻겠어요? 전주시 굉장히 고생한 건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조금 2차 조사에서 일단 제외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 네
위원장	- Q2는 보완할 사항이 참, 그 내가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이번 시민 숙의토론회에서 이 시나리오 외에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하라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저는 AQ2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빼면 우리 원으로 돌아가서 AQ만 남기고 빼는 것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 위원	-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 위원님이 정리해서 특별히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안, 2안, 3안 이렇게 올리신 것 같으세요. - 그러니까 1안은 비율을 그냥 안 묻는 방안, 2안은 그냥 중심시설에 대해서 묻는 방안, 3안은 각각 나눠서 비율을 묻는 방안인데요. - 저의 생각은 2차에서는 그냥 시나리오의 지지도만 묻고요, 8 페이지에 있는 Q3 정도 묻고 그다음에 Q5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나머지는 그리고 Q1, 2, 3, 4 이 세부적인 것도 3차에서만 그냥 물어보던가, 이게 상당히 똑같은 문항을 계속 하루 숙의에서 계속 물어가지고 빼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 AQ1, 2, 3 지금 거기 AQ1, 2, 3 지난번에 저건 다 뺀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거는 한번 물어보자 중심기능에 대한 퍼센트만 체크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퍼센트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쓰게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의미로서 적어 넣거든요? - 근데 우리 ○○○ 위원님이 아예 빼는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	- 그런데 저거를 이게 지금 그 퍼센테이지를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저게 별도의 문항이면 2차와 3차의 의견 변화가 120명의 의견 변화를 그대로 캐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시나리오가 팔릴 거고 3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이거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몇 명인지 몰라요 일단. 그런데 그 사람들만에 한해서 저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묻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2차가 있고 그다음에 3차에서 또다시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 퍼센테이지를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참여단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명이라고 예를 들자면 100명이라고 한다면, 4번 5번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모르잖아요. - 왜냐하면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비율을 꼭 물어야 한다면 마지막에 묻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3차에서요. - 근데 2차에서 묻고 3차에서 그 변화를 묻는게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 알겠습니다. 저 문항을 3차로 돌리자, 어쨌든 그 물음은 그 이야기가 있었습시다. 충분히 이것은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라서 그래서 한번 넣자 말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위원	- 비율이 제일 처음에 A 시나리오에 대해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중심 공간, 공간의 중심시설을 퍼센테이지를 한번 해보았더니, 그런 시설이 한 60%는 되어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3차에서는 이것이 50%가 나왔다, 공간 비율이 그럼 의미가 없는가요? - ○○○ 위원님이 의견도 중요한데, 지난번에 ○○○ 위원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퍼센트의 비율을 내는 것에 대해서 ○○○ 위원님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어요.
○○○ 위원	- 그다음에 저는 그 설문조사 기법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 중심시설에서 나뉘진다고 했을 때 모집단이 일단 굉장히 작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논의를 변화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변화치가 비교할 만큼의 결과가 나온다는 예측하는 법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 2차에는 묻지 않는 게 좋겠다. 굳이 퍼센트를 묻는다고 하면 3차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 가지 제가 글로 쓴 의견에도 불구하고. - 그리고 이 비법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동안 논의해 온 과정에서 저걸 넣자라고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다시 이것을 또 논의에 의해서 빼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 자체가 좀 신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넣자 했는데 좀 뒤집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 또 저는 개인적으로 ○○○ 위원님 이야기도 맞지만은, 또 유의성, 유의미하지도 않을까 꼭 3.3으로 나뉘지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위원	- 여기서 이제 그 적정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비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깐 소재 평면적 공간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층으로 올라오거든요.

	사무실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을 편성할 때, 그 연면적 이걸 가지고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걸 나름대로 확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혼선이, 아주 심각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결정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면적 입장에서 공간 구성이나, 입체적 입장에서 연 면적 측면에서의 공간 구성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이것을 평면적 구성이나, 입체적 공간 구성이나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혼란이 나옵니다. - 그래서 저는 개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간 구성 이랬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면적 공간 구성으로 본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전문가라면 따져보겠지만 공간 구상이라는 '공간 구상' 이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평면적 공간 구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한 개념 정의 이걸 필요한 것 같아요.
○○○ 위원	-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설명은 해줄 필요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 위원	- 그래서 첫 번째는 기부채납을 토지로 40%, 5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저 안에서도,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합의는 안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기부채납 사람을 후순위로 본 사람이 있고, 전제조건이 용도변경을 한다면 이걸 후순위겠네요. - 우리는 개발 면적 자체를 토지로 40%를 환수하고 그 위에다가 복합 개발을 하는 걸로 나는 이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니까 시나리오 자체가 불완전해요.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게 그중에서 하나는 고민인 게, 대표적으로는 상업시설인데 상업시설을 대충 몇 프로로 한다고 그러면 상업 시설에 대한, 상업 용도 변경의 큰 사이즈 안에서 용적률과 건폐율로 용도문제를 따지고 일단 지하까지 한다고 하면, 현재도 전체를 용도 변경을 100% 하자가 문제인지 상업시설은 다 지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우리가 상업시설에서 중심 시설해서, 상업시설이라고 통쳐가지고, 전체 면적의 몇 프로 평면적이라고 했을 때 스스로 나중에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 일단 이거 개발하는 데에서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업시설 연 면적 이런 건 큰 개념이 있는 거면 영업시설 면적으로 사실 조건 영향을 받을 거예요. - 이 모든 스펙트럼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묻는 것에 대한, 이렇게 일반

	적인 경향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시나리오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걸 숫자로 나중에 표현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위원장	- 잠깐만요. 저희가 숫자로 물을거나 구간으로 물을 거냐 논의를 하지 말고, 숫자로 묻던 구간으로 묻던 간에 지금 ○○○ 위원님이 하시는 의견은 2차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3차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2차에 대한 설문조사에 국한을 시켜서 구간이 됐든 어떤 숫자가 됐든 간에 저 사항을 어떻게 집어 넣을거나, 안 집어넣을 거냐 하는 것만 논의하고 저 문항을 나중에 또 3차에 나오니까는 그것은 별도로 조금 논의토록하시죠.
○○○ 위원	- 저는 그래도 두 가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2차에는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양보해서 3차에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 위원	- 지하에 상업시설이 들어간 그 땅은 용도가 어디예요?
위원들	- 상업용도요.
○○○ 위원	- 그러니까 상업 용도로 상업 용지로 해야만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그러니까 상업 용지로 가더라도 공원은 만들 수 있죠. -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여기서 허용하는 것이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 이게 안 된다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상업 용지로 한다고 해서 공원이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 저도 2차에서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이게 진짜 오래 논의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 출발은 아까 ○○○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나리오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나리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든 보완을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경향도 파악해보고 전면적이기는 하지만 어디에다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자라고 해서 이 문제가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 숙의 기간도 좀 짧아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한 우려되는 점이 있기는 합니까만 그래서 2차 때는 빼고 3차 때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는 빼고 3차에서 넣자.
○○○ 위원	- 그러면 저기 ○○○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3차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우리는 다만 경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지난번 우리 숙의를 않았을 때와 숙의 과정 하루하면 좀 변할까 그 경향을 좀 보고 싶은데 이런 의미에서 이걸 지금 넣었던 겁니다. - ○○○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위원	- 그리고 저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의견이 나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한다는 거죠.

위원장	- 우리가 AQ1, 3를 하는 것은 2차 때 저것을 집어넣는 것은 2차 때의 생각과 3차 때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그 변화를 물어보고 싶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변화를 보는 것보다는 3차 때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의견을 다 듣고 그렇게 해서 양해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 저는 양해해요.
위원장	- 그러면 우리 ○○○ 위원님이 양해해주시고 해서, 일단 이것은 빼고 그 대신 3차 때 이것을 한번 논의토록 한다. 양해해 주시는 만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빼고 2차 때는 아주 심플하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2차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그 다음 Q3-1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Q3-1, Q3-2, Q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수정한 거죠. - 만약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면 이걸 집어넣었습니다(Q3-2).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죠. 오늘 최종적으로 그리고 Q3-1, Q3-2, Q3-3은 그대로 있는거죠? 변화 없죠? 다만 이제 그 아래 Q4에 대해서 ○○○ 위원님이 별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 위원	- 저의 그냥 생각은 어차피 Q3-1, Q3-2, Q3-3 이거 다 되게 중요한 문항인 것 같은데 그냥 이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연관 검토 사항의 구체화된 방안이잖아요. - 그래서 이게 의견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어쨌든 숙의가 다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는 게 좋겠고, 2차 조사의 의미는 그냥 내가 이번 숙의를 하면서 뭐를 염두에 두어야겠다는 주제를 주는 게 핵심입니다. - 그래서 Q3를 보면 이런 게 중요한 걸로 설문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봐야합니다라고 그냥 환기하는 정도가 Q3에 담겨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1, 2, 3, 4까지 포함해서요 이거는 그냥 3차 조사에서 디테일하게 토론을 다 하고 숙의를 마친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을 실용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하고요. - 그다음에 Q4에 대해서는 이것도 뒤로 넘기는데 제가 그냥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도한 건 이 문항은 아니에요. - 그런데 제가 그 연관검토사항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시나리오를 할 때 3개의 연관검토사항이 나왔잖아요. 계획이득 환수량 지역 상생 방안이랑 기반시설확충이 3가지이었는데요. - 실은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도 그렇고 많이 고민했던 게 이게 사유지 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하는 거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 하나는 우리 이 공론한 결과를 과연 민간제안자가 수용을 한다면 제대로 이행을 할 것이냐,

	- 또 하나는 전주시민들이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있잖아요.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뭔가 어떠한 사전협상 제도 등을 통해 협상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주면 먹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했던 것 같아요. - 근데 연관 검토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뭔가 조금 약간 이게 공론화 결과가 나와서 정말 부지가 개발되는 방향으로 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뭔가 제대로 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방법은 없겠죠.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없지만, 이 공론화라는게 그거잖아요. -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중의 뜻을 무시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에 대해서 무언의 구속력이 있는 것, 이게 공론화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고 하면 이 개발부지에 땅이 비록 민간제안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이기는 하나 시민들이 이 공론화를 해서 이 결과를 내서 방향을 만든 만큼, 그거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 그게 무언 장치도 좋고 아니면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점검 장치, 모니터링 뭐 이런 게 조금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 그런데 그거를 저는 실은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연관 검토사항에서 이게 시민들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었는데 이게 시간도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더해도 됩니다 하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 그래서 그냥 저는 설문지에 왜냐하면 나중에 공론화위원회가 그냥 뜬금 없이 그런 걸 던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깐 여기서 전혀 논의도 안 되었고 설문지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먼저 의견이 모아진 것도 아닌데 공론화 위원회가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의견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러한 보안 장치나 이런 것들을 뭔가 권고안에 담고자 한다면 그런 것들을 설문에다가 조금 녹여서 담아주면 시민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답을 하겠죠. - 하면은 그거를 근거로 위원회가 좀 더 이 공론화 결과가 잘 이행되고 민간 제안자도 무엇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들의 뜻이 이렇게 모아져서 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 뭔가 약간의 그 이행 구속력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일단 ○○○ 위원님께서서는 Q4는 지금 얘기하신 그런 측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조금 미리 담은 의미로써 Q4를 2차 설문조사에 넣었다. 의미는 아실거니깐 생각해 보시고. - 다만 위에 Q3-1, Q3-2, Q3-3은 이번 설문에서는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 네

위원장	- 지금 여기에 Q3-1, Q3-2, Q3-3은 3차로 넘어가더라도 2차에서는 조금 뺏으면 좋겠다. - 다만 지금 얘기하신 그런 측면에서 Q4를 조금 조율하더라도 Q4를 넣었으면 좋겠다.
○○○ 위원	- Q4도 3차에 넘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Q4도 3차로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 위원	- 2차 때도 어느 정도의 감을 잡거나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핵심적인 것들이 물론 3차로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3차에 다시 물어봐서 어떤 태도 변화나 이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2차 때도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 일단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위원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론화 참여하는 100여 분의 개인적인 성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차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	- 지금 결국 3차에서 설문조사, 조사를 통해서 보시면 그때 여기 2차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사실 그게 다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한 번 생각해서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을 과정에서 리뷰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냥 한 번만 물어보는 것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 위원	- 저는 약간의 절충안으로 Q3는 집어넣고 Q3-1, Q3-2, Q3-3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은 공부한 뒤에, 그러니까 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할 건가 Q3에 1, 2, 3은 3차에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 위원	- 제가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제일 해석이 어려운 게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2차, 3차 정말하게 문항을 묻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게 진짜 숙의가 조금 더 탄탄하고, 제대로 돼서 예를 들면 시민의 생각이 공론조사, 그러니까 숙의를 하기 전에도 이 생각이었는데 숙의를 통해서 이 생각이 조금 있다가 더 커졌어 이러면 이 의견 변화의 흐름은 오히려 처음에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의견이 더 강화됐단 말이에요. - 그러면 이번에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서 정말 이런 방향으로 의견들이, 그게 의견 흐름의 변화를 보고서 다수의 뜻이라는 것을 결국은 노출하는 방식이잖아요. -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약간 숙의가 미진하거나, 부실할 경우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 수가 있냐면 제가 우려하는 건 이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씩 이번 같은 경우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공론화를 해보면 최근에 공론조사를 많이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자체도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숙의를 하면 안 하느만 못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공론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고는 싶고. 이랬을 때 2차, 3차 조사를 또 막 하겠다고 '제대로 정석으로 해야 해' 그래서 2차 조사도 하고 3차 조사도 막 해요. 문항 다 집어넣어요. -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났는데 이게 여론조사랑 큰 변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떨 때는 이 문항이 사지선다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면 3-2번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만일 들어온다든지 지역상권 상생 방안으로 뭐가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2차에서는 숙의 전이잖아요. 2번이었어요. 그런데 3차로 가는데 3번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엇갈리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3차 조사만 가지고 원래 시민의 뜻은 3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 그게 공론조사의 좀 맹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실은 이게 정말 시민 다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자면 숙의를 통해서 오히려 이게 같은 방향으로 좀 더 폭이 커지거나 줄어들었거나 확 줄어들었거나 이렇게 되는 게 좀 방향성이 그게 맞다고.
○○○ 위원	- 이런 조사를 할 때 2차, 3차로 넘어갈 때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 위원	- 평균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비율은 이게 공론화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누가 참여하느냐도 다른데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는 30~40% 정도 바뀌어요.
○○○ 위원	-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3차 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2차 조사 때는 이렇게 나왔지만 3차 조사 때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 위원	-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조차도 숙의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2차와 3차. 2차가 건너가면서 자기 생각이 더 정리되고, 강화될 수도 있고 변하는 게 약 30% 정도거든요. -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고 숙의를 거치는 동안에, - 그리고 또 여기는 일단 참여하시는 것 자체로서, 물론 아주 초보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생각과 주변의 생각들이 다 집약해서 오거든요. 저희들도 공부하면서 처음엔 모르고 오지만 한두 번 해보면 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다들 생각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제되는 의견일 수 있다. 따라서 2차를 넣고 3차로 가는 것도 하나의 숙의 과정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 설문조사 논의과정을 잘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 생각은요, 아까 ○○○ 위원께서 2차와 3차의 숙의 과정이라든지 기간이 너무 짧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봐요. - 저는 저희가 아까 말한 영상 자료집이라든지 이거 나갈 때 저는 아까 말한 가능하면 많이 담은 내용을 우편으로 받으실 건지, 이메일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구글을 품으로 받으실 건지를 전달해서 사실 그날 아침에 이거 받고 또 저녁에 또 쓰는 거 말고요. - 사전에 받는 것으로 하면 좀 ○○○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만에 하나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만 아침에 오셔서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사전에 조금 이메일로 3분의 1로 보내주시면 체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할 거고, 구글폼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만 생각해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팩스로 해서 체크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 사전에 저희 자료집 나가고 처음에 생각을 알고 싶다고 하는 취지. -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한 대로 2차 조사할 때 영상 나가고 자료집 나가고 다 나가버린 상황이에요. 그럼 생각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점이라고 보거든요. - 그래서 저는 처음 나갈 때 우편으로 보내서 그냥 우편으로 받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서 이메일로 해서 자료는 주되 내용은 이메일로 일괄 자료집 발송할 때 설문지까지 같이 넣어서 받는 방식은 이메일 팩스는 모두 다 해서 미리 보내주는 걸로 가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거다.
공론화 진행 사회자	- 다시 한번 저희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미 다 공감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숙의의 질문에 관해서 고민이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셔서 그 지점에서 지금 이야기가 한 번 더 고민하신다는 의견이고요. -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조차도 숙의의 과정을 보신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어떤 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인 권고안을 쓸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 1년 내내 이렇게 고생했는데 결국은 이게 뭐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된 게 가장 최악인 겁니다.
위원장	- ○○○ 위원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동영상도 하고 사전에 자료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봐도 괜찮겠다. 그런 의견이시죠?
○○○ 위원	- 이게 물어봐도 안 물어보든 2차에서만 물어보든 3차에서도 같이 물어보든, Q3-1, Q3-2, Q3-3 이거는 3-3은 괜찮을 것 같은데, 3-하고 3-2는 답변 항목 내용을 조금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 예를 들어서. 제가 Q3-1에서 저층 저밀도, 4번의 저층 저밀도 개발

	팔호치고 상업시설 최소화 이렇게 했는데, 저 말도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층 저밀도 개발을 하면서 상업시설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말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고요. - 그리고 Q3-2, 아까 ○○○ 위원님이 조금 우려했던 것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응답이 2차 조사에서 이것을 했더니 2번 지역 상인 우선권 부여 이것이 퍼센트가 조금 나왔어요. 한 20% 나왔어요. 그랬는데 3차 조사 봤더니 저것이 한 70%가 나와버렸어요. 변화가 확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입점권 부여 이런 것은 할 필요도 없어요. 저런 것은 여기 있는 지역 상인이 입점하지 않으면 영업이 안 돼요. - 그런데 이 참여한 사람들이 상인이 아니면 잘 몰라요. 입점권 부여, 뭐 큰 권한이나 주는 것처럼 그러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요. -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참 나중에 저도 고민스러워요. 저 부분에 대해서 된 문장을 쓰라 할 때, '왜 이 쓸데없는 것들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중시하게 됐지' 이러면 뭐라고 쓸 수가 없어요. -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에 어려움만 없다고 그러면 3차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2차 때도 살짝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 대신 문항은 조금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Q3-2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 중에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기금 조성'도 있고요. 상생하는 방안 중에 하나예요. -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해야 해요. 시에서 이걸 추진해야 해요. 그거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항 답변 항목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물어봐도 3차 의견이 중요하다면 변화된 것을 그 의미 부여하지 않고 3차 의견을 주는 경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그러면 3-1, 3-2, 3-3은 2차 조사에도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제까지 상당히 이걸 넣는다고 하는 쪽에 그동안 논의가 해왔고, 또 하나 만약에 120명이 이렇게 편향되게 갈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교육을 좀 잘하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거고요. - 그리고 또 그 변화도 의미 있는 것 아니겠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와 동시에 Q4 지금 ○○○ 위원님이 하신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기 때문에 ○○○ 위원님 만약 1, 2, 3을 여기에 넣는다면 4도 같이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4는 3차에 빼도 좋겠습니까?

○○○ 위원	- 3차에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 위원님이 주신 4는 3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 위원님이 주신 1, 2, 3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검토해 봐 주시죠.
○○○ 위원	- 아까 저층 저밀도 개발에 상업시설을 최소화하는 저거는 그냥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확 됩니다. - 우리 ○○○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역 상인들의 우선 입점권 부여' 보다는 '지역 상인들을 위한 기금 조성'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까?
○○○ 위원	- 아니요. '지역 상권 활성화 기금 조성' - 기금을 조성하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3번의 '쇼핑센터 규모 최소화'는 '상업시설 규모의 최소화' 쇼핑센터가 아니고요.
○○○ 위원	- 그런 의미에서 Q3에 이번에는 저는 저층 저밀도 하면 아파트 층수를 낮춘다던가 이렇게 생각했지.
○○○ 위원	- 그렇습니다.
○○○ 위원	- 상업시설 최소화하고는 크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 위원	- 저 말은 저층, 저밀을 하더라도 상업시설이 들어와 버리면 교통 혼잡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 뜻을 그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 위원	- 저층 저밀도 개발이라는 것이 상업시설의 최소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 위원	- 그건 아닙니다. 저층 저밀도 개발을 하더라도 상업시설을 저층 조밀로 할 수도 있잖아요.
○○○ 위원	- 양쪽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저층 저밀이라면 아파트 단지가 저층, 저밀로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 위원	- 예, 그렇죠. 그러면서 상업시설도 최소화하라 그런 것입니다. - 상업시설의 최소화하고 상업시설을 가더라도 저층 저밀도로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조금 차이가 나요. 저층 저밀도로 가더라도 상업시설을 좀 최소화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 저 이야기는 아파트, 주거도 저층 저밀도로 하고 상업시설도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 위원	- 그러면 그건 고민을 하고요. 3번의 '주변에 충분한 주차장 면적 확보' 이렇게 됐는데 왜 하필 주변이라고 했어요. 충분한 주차장 면적 확보를 해서 내부에다가 만들듯이. 주변에다 하면 이 땅에다 안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1번도 '주변 도로 폭 확장' 그러면 내부에는 도로 안 만듭니까?

○○○ 위원	- 내부는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변 간선도로 폭 확장'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 위원	- '주변 간선도로폭 확장', '대체 도로 시설 개설' 저건 지하차도, 언더패스 뭐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앞에서 거론되어 왔던 황방산 터널은 없어요.
○○○ 위원	- 그런데 저기서 황방산이 경우 너무나 2차 조사에 구체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아까 주변 충분한 주차장 면적 확보가 저게 B 안이에요. 밑에다가 지하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게 그쪽 요구였거든요. B 안이 지금 대부분 다 교통 얘기를 하시는데 Q3-1은 민간제안자의 개발을 지지하면서 주변에 보통 연계하자고 하는 부분들의 입장이 많이 담긴 안들이에요.
○○○ 위원	- 그리고 지금 이 질문지에 지난번에 만들었을 때 일괄적으로 '모르겠다/응답 거절'을 해놨거든요? 응답 거절이 상당히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응답 거절은 빼도 되겠어요. '잘 모르겠다' 하면 이걸로 되는 거지, '응답 거절'하니까 갑자기 이게 사람이 거기서 한번 체크하면 계속 '응답 거절'로 가요. '응답 거절'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	-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끝난 걸로 보고 지금 Q3-3 계획 이득 환수. 이것은 계획이득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이익환수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개발 이익환수는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요.
○○○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이후에 알아봤는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올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오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계획이득의 소위 계획은 자체에 대한 거고 나중에 그러니까 개발을 하든 안 하든 용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계획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거죠.
○○○ 위원	- 적극적인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환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렇게 보면 지금 개발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 사회 요건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교통이라든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충 이걸 받아야됩니다. 그래서 여기 Q3-3 하고 Q4 이것을 지금 2차 조사에서는 '계획 이득하고 기부채납의 환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든지 해서 이걸 사전에 조금 언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 관계자	- 이것은 상업 용지로 바뀌거나 현재 지금 주거 용지로 바뀌어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안 물어봐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게 지금 조례도 바꾸고 있습니다.
○○○ 위원	- 기부채납도 사실 공론화 위원회에서 언급을 해줘서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근거의 틀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 위원	- 근데 기부채납은 법에 의해 내야하기 때문에.
○○○ 위원	- 저는 Q3-3하고 Q4 이건 3차에 있으니까, 그 대신에 Q3-3 해서 여기 '계획이득과 기부채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사전에 좀 여기다가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 그냥 이것은 Q4는 확인 사살을 위한 거니까는 저기 좀 문항도 줄이고 해서 저기 설문조사 3차 때 올리는 것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충 지금 조율이 된 것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 모두	- 네
위원장	- 그러니까 Q3, Q3-1, Q3-2, Q3-3, Q4는 아니고 Q5가 Q4로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	- Q6을 물어봐야 합니까?
위원장	- Q6은 지난번에 물어보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 위원	- 어떻게 나올까요? 대신 결과는 대충 추정을 해야 하거든요.
○○○ 위원	- 신뢰할 것이라고 답변이 우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 설문을 만들 때는 결과를 대충 예상을 하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 위원	- 참여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 뭐 다른 의견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3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근데 9페이지예요. 7, 8, 9 그런데 9에 가서 시가화 예정용지 설명이 있거든요? 그걸 봐도 뭐가 된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 위원	- 지난번에 달기로 해서 지금 달아놓은 겁니다.
○○○ 위원	- 그런데 지금 9번을 보면 문항이요. '현재 대한방직 부지는 도시계획상 어떤 용지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1. 안다 2.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어떤 용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 위원	- 7, 8, 9가 다 그래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	- 아시나요로 물어보면 좀 그러네요. 아시나요 그러면 안다, 모른다이기 때문에 '대한방직 부지는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요?' - 그런데 시가화 예정용지 말고는 없습니까? 주거 용지, 상업 용지, 공업용지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이 시가화 예정용지는 너무 전문적인데.
○○○ 위원	- 이게 왜냐면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상의 용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쉽다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는거예요. 여기는 앞으로 시가지가 되는 공간인가보다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전주시 관계자	- 정확히 따지면 시가화 용지하고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는데요. 시가화 용지는 주거 용지, 상업 용지, 공업용지, 보전 용지 이렇게 해서 시가화 용지고 그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는 자연 녹지 보존 용지 중에서 우리가 개발할 지역들을 선택해 놓은 것입니다. - 그래서 여기 지금 대한방직은 이미 시가화 용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위원장	-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용지, 보전 용지로 들어가는게 더 나아요.
○○○ 위원	- 밑에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 바꿔줘야 합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 3차 공론조사 설문 논의

위원장	-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3차 조사 3 페이지를 보시죠. 이거 응답자에게만 빼죠. 앞에서도 뺐는데. 저 이슈 묻는 것 앞에는 뺐습니다. 여기도 빼겠습니다. - 이게 그리고 AQ1에 1,2,3 빼는 거죠? AQ1에 3 넣습니까? 공간 구성 넣자고 했죠?
○○○ 위원	- ○○○ 위원님이 안을 제시해줬거든요. 1안, 2안, 3안. - 빼는 것이 1안, 넣는 것이 2안으로 그냥 중심시설 퍼센트이지만 100% 딱 써라 이것이 두 번째 안이고, 세 번째 안은 구체적으로 중심 시설과 나머지 시설에 그 세부 내용까지 이거 퍼센테이지로 100을 맞추라고 써주라고 하는 것으로 보내주셨다네요.
위원장	- 또 ○○○ 위원님이 여기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 먼저 잠깐만 ○○○ 위원님이 하신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1 안은 묻지 않는 것, 2 안은 중심시설을 적는 거죠. 3 안은 중심시설과 나머지 시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중을 적는 겁니다. 그렇죠. - ○○○ 위원님 안도 여쭙보겠습니다.

○○○ 위원	- 3-1안 하고 같네요.
○○○ 위원	- 사실은 이렇게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보고 100을 맞추는 게 사실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시나리오별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그러면 다 어차피 포함이 될 것 같아요. - 지금 여기는 어디에 저희가 사람들이 비중을 두냐 알고 싶다면 상업, 공공, 주거 이런 걸로 해서 한번만 물어보면 어떤가요. 어차피 시설은 똑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 위원	- 아니요. 시나리오 B는 다릅니다. 시나리오 B는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 위원	-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시나리오 별로 어떤 시나리오를 중요하냐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선호하느냐 예요.
○○○ 위원	- ○○○ 위원님은 다 시나리오 별로 묻지 말고 시나리오 전체로 한 번에 묻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 위원	- 지지자들에게만 물어보는 겁니다. A를 지지한 사람만 A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요. 지지하지 않는 사람 한 번만 해요. B는 내가 지지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A도 지지하고 B도 지지하고 나는 C도 지지한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다 응답을 해야겠죠.
위원장	- 지지하는 사람만 각각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	- 이 시설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얼마를 지금 이 배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지지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아까 말한 대로 꼭 하나만 시나리오를 지지하고 나머지는 지지하지 않는다.
위원장	- 일단은 그러면 ○○○ 위원님하고 우리 ○○○ 위원님 의견 중에 택하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 저기 ○○○ 위원님 1, 2, 3안인데 3-1안하고 ○○○ 위원님 의견이 비슷한 거죠. 그렇죠
○○○ 위원	- 제가 제 의견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 이제 여기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하고 민간제안자는 협상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중심시설이라고 해서 그것만 딱 있고 나머지가 나머지 시설이 하나로 딱 들어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심 말고 다른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붙여진 어떤 안을 게시를 얹게 되면 시하고 민간제안자의 협상 과정에서 여기서 굉장히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잘 되고 잘못되던 간에 시가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처리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이걸 해서 1년 가까이 됐다고 했는데 이 안은

	어떤 것이 중심이 되면 좋겠다고 하면서 왜 다른 시설들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부가적으로 딱 해버리고 나름대로 하겠다고 했냐 하는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 그래서 이게 저는 여기에서 이 비율들이 어떻게 나오건 여기에다가 가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것이 원래 그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사항이 그렇다. 그러면 시나리오 이것이 건의가 돼서 그래서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 - 이게 이 비율이라는 것이 이걸 선택한 사람도 비율이 다를 거라고 봐요. 범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나오겠지라고 한 겁니다. -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진행시키는 데, 그렇게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비슷한 생각에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4, 5만 빼면 그냥 전체에 한 번 물어봐서 끝내는 건 어떤지. 저게 의외로 대답하니까 어려워요. - 아까 ○○○ 위원님의 의견도 좋다고 보는데요. 구글 미트에 들어가서 설문지 이렇게 해주면 탁 넘어가게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는 않아요.
위원장	- 2차 설문을 하고 오느냐 그냥 와서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3차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 위원	- ○○○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저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 위원	-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심 시설, 나머지 시설을 정량화하지 않는다는 제 의견을 밝혔고요. 그 의견지형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안을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은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퍼센트를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 위원	- 저는 나중에 분쟁 이런 것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그냥 제 의견을 드린거죠. - 제 생각은 오픈 문항을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간을 정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쓰라고 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 그럼 여기서 구간으로 하느냐, 아니면 쓰게 하느냐? ○○○ 위원님 쓰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 위원	- 비율에 대해서 쓰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숙의과정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통계하시는 분들께 좀 여쭙볼게요. 구간으로 물어보면 통계치의 평균을 구할 수 있나요?

용역 수행기관	- 네.
○○○ 위원	- 설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쨌든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구간으로 해서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 자 이렇게하면 어떻겠습니까? 구간으로 택하되 굳이 쓸 수 있다면 쓰는 방법도 동시에 하시죠. 또한 문구도 80% 이상으로 바꿔주시죠.
○○○ 위원	-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 문항을 또 물어봐야하는지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이런걸 3차에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	- 인식도는 물어봐야되요. 그게 숙의의 정도를 묻는 문항이에요.
위원장	- 3차 설문 8 페이지로 가주세요.
○○○ 위원	- Q5는 2차에서 안 물어봤고 새로 나온 겁니다.
○○○ 위원	- 2차에서 이거 물어보잖아요.
○○○ 위원	- 2차에서 안 물어봤는데 Q5?
○○○ 위원	- 여기 있잖아요. Q5 6개월 동안 내용을 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2차에서 물어보고 3차에서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용역 수행기관	- 문항이 다릅니다.
위원장	- 아까 ○○○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저걸 여기에 3차에 물어보기로 했는데 3차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워딩을 조금 바꾸거나 또 우리 아까 ○○○ 위원님이 하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 Q5번이 여기 3차에 Q5번이 있거든요. 2차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집을 보고 왔느냐고 해야지 그 과정에서 지금 이거는 그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봤는지 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 근데 3차가 그날 이루어지잖아요.
위원장	- 그러니까 2차 때는 안 물어보고 3차 때 물어보겠다는 뜻인것 같은데요.
○○○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2차로 가야 하잖아요.
위원장	- 일단 저희 ○○○ 위원님이 얘기한 것부터 먼저 논의하겠습니다. 저걸 조금 워딩을 그대로 해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바꿔야 좋겠습니까? 기부채납 혹은 ○○○ 위원님 물음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 위원	- 저는 여기에 4번에 저기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의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면 이 안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봐요 - 그래서 이 안 자체는 이 의견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환수 장치를 어떻게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 위원	- 첫째는 환수에 대한 것은, 아까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것은 맨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고 환수 시점에 대한 것도 저기 나와 있어요. 의견에 우리 발표 의견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협상제도를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면 사전협상 제도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사전협상 제도 속에 맡기면 이거는 될 것 같아요. - 지금 ○○○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문제는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해 그냥 자연적으로 거두어지게 두고, 더 크게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그게 계획이득이 됐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개발이익 됐건 그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전협상제도에 맡기면 되겠다.
○○○ 위원	- 다른 지역에서 계획이득이라고 하면서 개발을 동시에 했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주시 관계자	-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5%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과 상관없이 개발이 이루어지면 내야 하는 돈이에요.
○○○ 위원	- 그런데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전주시 관계자	-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바꾸고 사전협상제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기부채납이란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채납 이러면 일반 시민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Q4는 여기에 포함시키자 공공기여, 기부채납의 이행 여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혹시 ○○○ 위원님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워딩을 달리해야 할 그런 거는 있으십니까?
○○○ 위원	- 있습니다. 이 문항은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인 사살 문항이거든요. 확인 사살 문항이면서, 대신에 공론화위원회가 그냥 근거 없이 이야기를 던지는 것은 너무 조금 그래도 공론화 위원회가 시민의 이런 이야기가 주된 의견이었다는 뭔가 근거를 만드는 차원에서 아주 당연한,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한 문항이 한 5점 척도로 해서 3문항 정도를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세 쪽지로 해가지고요, '다음은 개발 이행 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인식에 대한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 첫 번째, 사전협상 제도는 전주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두 번째는요. 아까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 이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세 번째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변경 이후에 개발 과정에 대한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5점 척도로 해서.
위원장	- 조금 전 3문항에 대해서 각각의 5점 척도를 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 네. 문구는 제가 지금 즉석에서 만든 문항이어서. 저기 Q3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위원장	- 일단은 저기 그걸 고민하실 것 없고 Q4도 살리고 지금 ○○○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살리면 둘 다 되는 겁니다. 자꾸 문항을 하려고 하지 말고. 괜찮으시죠?
○○○ 위원	- 앞에 문구는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위원 모두	- Q4문항을 경우 앞까지만.
위원장	- '시민공론화 결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개발 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렇게 바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꼭 공론화 결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를 꼭 써야 하는가요?
○○○ 위원	- 네.
○○○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저거는 개발 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그러면 저보고 응답하라 그러면 저거 5점 척도로 하면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나와요.
○○○ 위원	- 아니 그거를 그냥 유도한 것이니깐.
○○○ 위원	- 확인사살을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확인사살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의 뭐냐 하면 개발의 사업자의 신뢰도 문제를 묻고 싶어요. - 그래서 거기다 그것만 묻기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뒤에 문항이 또 나오네요.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관련 공개 자료 등 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신뢰 또 나와요. 여기서도. - 행정의 정보신뢰도 물어보고 있고, 얼마나 존중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이걸 합치고, 아까 이것도 같이 물어보면서 동시에 개발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개발사업자의 신뢰도, 팔호치고 민간 제안자의 신뢰도도 물어보고 싶어요.
위원장	- 근데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게 민간제안자와의 싸움이 되고 신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자동적으로 느낌으로써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문에 물어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저기 ○○○ 위원님이 얘기하신 Q5 이걸 2차에 문자. 2차에 있습니까?
위원 모두	- 없어요.
위원장	- 2차에 없으니깐 2차에 문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용역 수행기관	- 이 문항이 처음에 들어간 배경이 2일에 걸쳐 할 때 처음에 무지의 상태에서 물었던 거고, 그리고 3차 때는 제대로 확인하여 물었던 건데 지금 상황은 사전에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2차로 가는게 맞습니다.
위원장	- 2차로 가는 게 맞다? 그럼 2차로 넘기겠습니다.
○○○ 위원	- Q7은 이걸 또 뭘니까. 존중하시겠습니까?
공론화 진행 사회자	-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숙의의 과정을 8시간 거치고 이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고 과정에 내가 충분히 발언할 기회가 있었다는 게 정리가 되면 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 숙의과정이 이제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이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공론화를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모양입니다.
○○○ 위원	- 그런데 거기를 귀하의 의견과 다를 경우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어요.
공론화 진행 사회자	- 이거는 좀 더 명확하게 질문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 선례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 저희가 숙의를 하는 이유가 상태와 의견이 달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위원	- 꼭 귀하의 의견과 다를 경우를 써줘야 합니까? 그냥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요.
○○○ 위원	- 이게 약간 합의 협의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 예를 들어서 A라는 의견이 70% 나왔고 30%는 A라는 의견을 주지 않았더라도 내가 여기 와서 충분히 다른 발언을 할 기회를 다 가져서 나의 의견을 표명을 했고, 내 의견은 이거지만 상대방의 의견이 A라고 갔어도 나는 할 이야기 다 했고 상대방이 의견을 들어보니 타당한 부분이 있으니 다수의 뜻이 그거라면 나는 다수의 뜻에 따르겠다는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공론화의 기본 정신입니다.
○○○ 위원	- 전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구만요. 저기 그러면 순서만 좀 바꿔주죠. 저희는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앞으로 해주고 존중하지 않겠다는 뒤로 빼주죠.
○○○ 위원	- 앞으로 빼주시고. 그러면 아까 Q6 저게 2차에도 있고 3차에도 있죠. 2차에는 빼면 안 됩니까? 비교해야 됩니까? 나는 2차에는 뺐으면 좋겠는데.
용역 수행기관	-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전혀 무지 상태에서 왔을 때, 자기가 사전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갖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 우리 공론화에 대한 위원들에게 여쭙보겠습니다. 2차에도 물어보고 3차도 물어봐야 합니까? 저는 2차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모두	- 빠시죠.
위원 모두	- 이것도 그러면 신뢰가 좋은 것이면 앞으로 옮깁시다.
공론화 진행 사회자	- 설문조사가 조금 변경이 되면서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깐 3차 설문조사가 사실은 시민 토론회 프로그램하고 그대로 연동되거든요. - 제가 짠 것의 기본은 뭐냐 하면 시나리오별로 선호를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이야기한다는 게 기본 포맷인데, 3차 설문조사는 사실 그것보다는 연관 검토사항 부분이 굉장히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틀의 변화가 아니라 약간씩 시간 배분 한 10분 정도만 할 수 있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공론조사 2, 3차 조사 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공론조사 자료집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앞에 겉표지 보면 비표 아이디하고 이름 나와 있거든요. 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용역 수행기관	- 참가자 이름이요.
○○○ 위원	- 지금 뒤에 학력이나 소득이나 이런 일반적 사항을 다 밝히고 있는데 여기다 자기이름까지 이거 꼭 우리가 이름을 코딩 합니까?
용역 수행기관	- 왜냐하면 그거는 현장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하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 위원	- 비표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우리가 연관시킬 순 없나요?
용역 수행기관	- 굳이 안 밝히고 싶으면 안 밝혀도 되는데 보통 뭐 관례적으로 아이디가 있고 사람 이름은 본인 신분용 신분증을 대신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 위원	-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랑 다르게 익명성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책임성을 가지고 어찌 보면 한편 그 의견을 던지는 분이니까 이름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 위원	- 그러면 그건 이해하고, 전체를 앞뒤 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소기 때문에 글씨는 12포인트로 조금 키워주시죠. 밑에 있는 이 지지한 다를 뒤로 넘겨버리세요. 이 문항을 뒤로 넘겨버리시면 12포인트 정도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원	- 저희 자료집에 위원님이 만들어주신 전주시 조례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런데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요점만 해주세요. - 다음 차기 회의를 결정하겠습니다. 23일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일 그 주가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11일 오전에 안 되시는 분?
위원 모두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다음 회의는 2021년 1월 11일로 하겠습니다. - 제 17차 공론화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